

楡院十二曲(유원십이곡)

安瑞羽(안서우)

<서장>

내 마음 저버야 님의 마음 싱각하니
나 슬흐면 님 슬코 님 도흐면 나 도흐니
모로미 己所不念(기소불념)을 勿施於人(물시어인)히리다

내 마음 접어야 남의 마음 생각하니
내 싫으면 남도 싫고 남 좋으면 나 좋으니
모름지기 내 내키지 않는 것 남에게 얹으리.

* 기소불념 물시어인 : 내가 할 마음이 없는 것을 남에게 하라 하지 않음.

<1장>

文章(문장)을 헛자 하니
人生識字 憂患始(인생식자 우환시)오
孔孟(공맹)을 비호려 하니
道若登天 不可及(도약등천 불가급)이로다
이 내 몸 쓸 데 업스니 聖代 農圃(성대 농포) 되오리라

공부를 하자 하니
사람이 글 아는 것은 근심의 시작이요
공맹을 배우려 하니
도리를 익히기는 하늘만큼 어렵구나.
이내 몸이 쓸 데 없으니 농사꾼이 되오리라.

* 도약등천 불가급 : 학문의 도리는 하늘에 오르는 것과 같아 이르기가 어려움.

* 성대 농포 : 태평시대에 논밭을 일구는 사람.

<2장>

靑山(청산)은 브스 일노 無知(무지)흔 날 곳으며
綠水(녹수)는 엇지 햏야 無心(무심)흔 날 곳트뇨
無知(무지)타 웃지 마라 樂山樂水(요산요수)햏가 햏노라

청산은 무슨 일로 무지한 나 같으며
녹수는 어찌하여 무심한 나 같은가.
무지하다 웃지 마라, 요산요수할까 하노라.

<3장>

紅塵(홍진)에 絶交(절교)햏고 白雲(백운)으로 爲友(위우)햏야
綠水 靑山(녹수 청산)에 시름 업시 늘거가니
이 둥의 無限 至樂(무한 지락)을 현스햏가 두려웨라

세상과 인연 끊고 흰 구름과 벗을 삼아
청산녹수에서 시름없이 늙어가니
이러한 무한한 즐거움을 시샘할까 두려워라.

* 현사할까 : 다른 사람이 시끄럽게 떠들까봐.

<4장>

耕田(경전)하야 朝夕(조석)하고 釣水(조수)하야 飯餐(반찬)하며
長腰(장요)의 荷簾(하검)하고 深山(심산)의 採樵(채초)하니
내 生涯(생애) 이 썩이라 다투서 다시 알리

밭 갈아 끼니하고, 낚시하여 반찬하고
허리춤에 낫을 차고 깊은 산에 나무하니
내 생애 이뿐이라, 다투서 다시 알리오.

<5장>

내 生涯(생애) 澹泊(담박)하니 그 다투서 찻조 오리
入吾室者 淸風(입오실자 청풍)이오
對吾飲者 明月(대오음자 명월)이라
이 내 몸 閑暇(한가)하니 主人(주인) 될가 하노라.

내 생애 담백하니 그 다투서 찻조오리.
내 방에 드는 것은 맑은 바람이요,
나와 함께 술 마시는 이 밝은 달이라.
이내 몸 한가하니 주인 될까 하노라.

<6장>

人間(인간)의 벗 잇단 말가 나는 알기 슬희여라
物外(물외)에 벗 업단 말가 나는 알기 즐거워라
슬커나 즐겁거나 내 분인가 하노라

세상에 벗 있다 하니 나는 알기 싫어해라.
세상 밖에 벗 없다 하니 나는 알기 즐거워라.
싫거나 즐겁거나 내 분수인가 하노라.

<7장>

嶺山(영산)의 白雲起(백운기)하니 나는 보미 즐거워라
江中 白鷗飛(강중 백구비)하니 나는 보미 반가워라
즐기며 반가와 하거니 내 벗인가 하노라.

산마루에 흰 구름 이니 나는 보기 즐거워라.
강 가운데 갈매기 나니 나는 보기 반가워라.
즐기고 반가워하니 내 벗인가 하노라.

<8장>

有情(유정)코 無心(무심)홀 손 아마도 風塵 朋友(풍진 봉우)
無心(무심)코 有情(유정)홀 손 아마도 江湖 鷗鷺(장호 구로)
이제야 昨非今是(작비금시)을 씌득른가 하노라

다정하고 무심한 이 아마도 세상 벗들
무심하고 다정한 것 아마도 강 위 새들
이제야 어제 그른 것이 오늘 옳음을 깨달았노라.

* 구로 : 갈매기와 백로

* 작비금시 : 어제 그르다고 한 것이 오늘 옳게 됨.

<9장>

陶彭澤(도팽택) 棄官去(기관거)흐 제와
太傅(태부) 乞骸歸(걸해귀)흐 제
浩然 行色(호연 행색)을 뉘 아니 부러 흐리
알고도 不知止(부지지)흐니 나도 몰나 흐노라

도연명이 벼슬살이 버려두고 떠나갈 때
가태부가 벼슬살이 물러나려 간청할 때
큰 뜻에 마음 넓으니 뉘 아니 부러워하리.
알고도 그만 둘 때 모르니 나도 몰라 하노라.

- * 도팽택 기관거 : 도연명이 팽택 현령으로 있을 때, 독우라는 상급자가 인사를 할 것을 강요하자 하찮은 녹봉 때문에 허리를 굽힐 수 없다고 하며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간 일
- * 태부 걸해귀 : 장사왕의 태부 가의(賈誼)가 벼슬에서 물러가고자 장사왕에게 간청한 일
- * 부지지 : 그만둘 때를 알지 못하니

<10장>

내 마음 定(정)흐 後(후)니
爲貧而仕(위빈이사) 거즌말이
내 몸을 自傳(자전)티 못흐니
爲親而屈(위친이굴)이 올흔 말이
이제나 養極專城(양극전성)흐니 도라 갈가 흐노라

내 마음 정한 뒤이니
가난하여 벼슬한단 말 이는 거짓이리니
내 몸을 스스로 온전하게 못할지니
부모 위해 몸 굽힌단 말 이는 옳을 터이니
이제는 지극히 봉양하러 돌아갈까 하노라.

- * 양극전성 : 부모님을 지극히 봉양하기에 정성을 다하니. 전성(專城)은 전성(專誠)의 오기인 듯.

<11장>

人間(인간)의 風雨(풍우) 多(다)흐니 므스 일 머므느뇨
物外(물외)에 烟霞(연하) 足(족)흐니 므스 일 아니 가리
이제는 가려 定(정)흐니 逸興(일흥) 계워 흐노라

세상에 비바람 심하니 무슨 일로 머물러뇨.
세상 밖에는 경치 좋으니 무슨 일로 아니 가리.
이제는 가려고 정했으니 흥에 겨워 하노라.

- * 연하 : 안개와 구름. 고요한 산수의 경치
- * 일흥 : 세속을 벗어난 흥취

<12장>

먹거든 머지 마나 멀거든 먹지 마나
멀고 먹거든 말이나 흐련마는
입조차 병어리 되니 말 못하여 흐노라

귀 먹으면 눈멀지 말지, 눈멀면 귀 먹지 말지.
눈멀고 귀 먹거든 말이라도 하련마는
입조차 병어리 되니 말 못하여 하노라.